

칼럼



이 중효 포천시의회 의원

국보형(國寶形) 지도자가 필요하다

요즘 방송이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 연말의 국가지도자를 뽑을 각 당의 일꾼의 경쟁을 최대의 관심사로 내 보내고 있다. 뜻을 가진 사람과 모든 후보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 경제, 안정, 통일 등 각자 자신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청사진을 발표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 희망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의 덕목은 높은 도덕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그리고 일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 실현가능한 정책인가의 현실성 등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고 경제적으로 낙낙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의 소박한

실사구시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지도 모른다.

성경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잠언 30장)"라고 말씀 하셨듯이 지도자라는 일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기 전 도덕적으로 스스로 정화시키듯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눈꺼풀이 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달콤한 말이나 행동으로 국민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올바른 뜻과 일로 국민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링컨의 케리즈버그 연설의 핵심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므로 그 힘을 바탕으로 믿음과 신뢰를 갖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문득 중국의 작

은 거인 등소평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지도자를 네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 국보형(國寶形)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 둘째, 국재형(國才形)말은 약간 어눌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셋째, 국요형(國要形)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 넷째, 국폐형(國廢形)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본인은 적절한 분류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안에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전문가답을 아니 해 볼 수 없다.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 이 시대에 훌륭하다고 말하는 지도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의 유형은 국보형과 국재형으로 그 내용을 뜯어보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에 비중이 실려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선출직 지도자 다수는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일로 평가와 신임을 받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한다.

삼사개월 후면 우리는 국가의 일꾼을 뽑게 된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국가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니면 차선으로 말은 약간 못해도 일 잘하는 일꾼이 당선 되었으면 한다. 또한,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성실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자신이 공약으로 한 부분은 임기내에 꼭 이루어지기는 일꾼이길 바라며...

어느덧 계절은 지루한 장마가 지나고 땀방울로 일구어낸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가을, 푸르고 높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올해가 가가진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일꾼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은 국민에게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번 더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기고

노령사회와 노인건강의 과제



정 송 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진다.

특히, 동농 복합지역이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고 노인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분포도를 유지하는 우리 포천시도 노인의 문제는 점차 시 행정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포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중 중요하게 지켜야 할 사항은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양적 증가이다. 평균

있던 일본의 40년보다 훨씬 앞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노인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고,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 약 18조 중에서 8.3%인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24.4%(6조)를 사용,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도 65세 이하 진료비의 3.6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험공단통계지표)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당연히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에서는 다양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노인 분들에게 건강체조, 민속춤, 요가, 기체조 등을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금년도 648회를 목표 중 현재 419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금연강좌 4회, 지역건강 캠페인 3회를 실시하여 지역 노인들과 함께 하였고, 특히 노인분 중에 고혈압, 당뇨, 고관절로 고생하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 중 우리지사 사레관리사 및 합리적 의료이용 담당자가 1,108회를 자택에 출장하여 복약지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분들에게는 실질적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제는 결국, 노인들의 건강 생활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도 막는 일로 건강보험 재정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서 이달부터는 간호사를 2명 채용하여 만성질환자 노인들에게 정구적으로 혈압과, 당뇨 체크 등을 실시하여 노인 분들 중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한다.

중대 노인의료보장 시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소수의 노인들이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개발 운용되어 왔다.

이는 다수의 노인들이 건강권의 보장에서 소외된 채 이어져온 때문이다. 이제는 고령화된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의료보장대상이 저소득 노인에서 건강보험증이 있는 대상까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제 2008년 7.1일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태동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은 본인 및 가족 모두의 힘든 과제이었다.

그러나,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불편한 노인의 가정에 웃음이 피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서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있다.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하는 노후우로 장기요양보험도 세심한 준비로 전 국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다.

“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당연히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에서는 다양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선 노인 분들에게 건강체조, 민속춤, 요가, 기체조 등을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금년도 648회를 목표 중 현재 419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금연강좌 4회, 지역건강 캠페인 3회를 실시하여 지역 노인들과 함께 하였고, 특히 노인분 중에 고혈압, 당뇨, 고관절로 고생하시는 분이 불편하신 분들 중 우리지사 사레관리사 및 합리적 의료이용 담당자가 1,108회를 자택에 출장하여 복약지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분들에게는 실질적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다.

”

수명이 1995년의 남자 69.6세, 여자 77.4세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2세로 늘어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95년에 5.9%였던 것이 2020년에는 약 15.7%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분류하여 노인인구의 부양지수를 산출하면 1995년 현재 8.3%에서 2000년에 15.6%, 2020년에 21.8%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으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인식되

교육에세이 49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

이번 호부터 교육에세이는 영평초등학교 이호연 교장이 연재하기로 한다. 이호연 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부천대명초등학교와 부천상지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후 영평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이 교장은 특히 월간 한책문화에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편집자주)

초입교사 시절에 모셨던 교감선생님께서 "한가지의 바람직한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서른 아홉번의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 때 당시는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나의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말씀이었다.

이런 교육적인 사고가 교육학의 두 흐름 중에서 '교육이란 미성숙자를 성숙케 하는 과정으로 보는 교육학의 흐름' 중의 하나이다. 이런 교육적인 사고의 주된 입장은 '주입으로서의 교육', '주형으로서의 교육', '습관형성으로서의 교육'이다. 따라서 이 교육사조의 입장은 교육에서 '주입(Input)'의 과정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의 문제점은 인간 존재에서 미성숙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인격자요 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필자가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일상생활 거의 전부를 스스로 해결했다. 점심 먹는 것, 숙제하는 것, 집안 일 돌보는 것 등등 모두 내 스스로 했다.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미흡한 면이 많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름대로 실행한 일련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소위 요즈음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생활인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런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인격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교육 사조는 '교육이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잘 이끌어 내어 계발시키는 과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교육의 입장은 '계명으로서의 교육', '성장으로서의 교육',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교육이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잘 이끌어 내어 계발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사조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교육에 있어서 주입의 과정보다는 '산출(Output)'의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이란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작용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작용으로 본다. 디지털문화가 도래하여 산업혁명

이상의 큰 혁명이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명제가 당연히 등장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교육사조에서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정립된 교육관으로 교육을 바라보면서 교육할 때 교육의 혁명은 손쉽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똑똑이와 똥똥이'에 얽힌 내용을 소개해 본다. 똑똑이와 똥똥이가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똑똑이는 학교에서 이름난 우등생이고 똥똥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쟁이였다. 그러나 불행스럽게 두 친구는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똑똑이가 척 보니까 호랑이는 250m 떨어져 있는데 달려오는 속도는 시속 50km정도라고 파악 되었다. 똑똑이는 정확히 계산을 해보더니 "야, 우리 이제 17.88초 후면 죽었다."라고 목소리 나게 재빨리 결론지으면서 친구 똥똥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똥똥이는 태연스럽게 자기 운동화 끈을 동여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우등생 똑똑이는 열등생 똥똥이를 비꼬았다. "명청하긴, 네가 뛰어봤자지, 호랑이보다 빨리 뛸 것 같아?" 그러자 똥똥이는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야,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에일대학 심리학자 Steinberg 교수가 쓴 '성공적 두뇌(Successful Intelligence)'에 나오는 이야기다. Steinberg 교수는 "오랫동안 인간 두뇌와 능력을 연구한 결과 인간의 지능은 최소한 분석력, 창의력, 적용력 세 종류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대부분의 교육이 지능의 일부인 분석적 능력만 측정하고 개발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우등생 똑똑이는 분석적 지능은 뛰어났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식으로 문제를 훌륭하게 풀었다.

그러나 계산으로 푼 답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전혀 가치가 없었다. 현실성을 고려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면 분석적 두뇌, 현실적 두뇌, 창의적 두뇌를 골고루 활용해야 한다. 창의력이 필수인 정보화시대에는 똑똑이가 아닌 똥똥이의 시대다. 창의력은 체제거부형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 A학점 졸업자는 B학점 받던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부만 잘한 우등생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준 우등생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말이다.



이 호 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 쇼핑백



비닐 제품



공장 · 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